경북도민일보

경북 자치경찰, 구미서 지역 치안 협력망 다졌다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협력회의
QR코드 활용 우수사례 공유 등
지역 안전망 구축 위해 머리 맞대

경북도경찰자치위원회가 9일 구미시와 경북경찰청, 구미경찰서 등과 치안서비스 강화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구미 라마다호텔에서 '자치경찰사무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협력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실질화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미시,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제 정책 동향과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군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치경찰사무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진단을 바탕으로 범죄취약지역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한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올해는 진평동·양포동·인동동 원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안심거리 조성과 노후 범죄예방시설 정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확대, 이동형 CCTV 활용,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협력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배성훈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군, 경찰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시군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과 경찰서를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대호 기자 homigod@hidomin.com